

國民的 합의 바탕위에서 原電 추진해야



徐 廷 旭
(科學技術處 次官)

국내의 原子力界인사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원자력이용은 '60년대 연구용원자로의 가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70년대의 원자력에너지 이용을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룩하여 현재는 원자력발전소 9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전력수요의 절반을 공급할 정도로 주종전력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도 산업체, 의료기관 등 다방면에서 이용되어 그 이용기관수는 700여 기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력은 이미 일상생활속에 없어서는 안될 만큼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차원에서는 물론 국민생활의 복지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소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원전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선진기술을 흡수, 소화, 응용하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核非擴散條約(NPT)이나 안전에 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온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온 시범국가로 인정을 받고, 대내적으로는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산업을 우리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원자력산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시설용량면에서나 건설 및 운전 경험면에서 그리고 개발기술면에서 성숙기에 들어갔으나, 최근 원자력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 원자력기술의 자립성 그리고 안전도 사태이후의 사회적 수용성 등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는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자리를 빌어 우리 원자력계가 당면한 몇가지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 슬기로운 협력을 해야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환경에서 보면 최근에 온실효과 등 地球環境問題가 제기됨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이 강화되었고, 걸프戰으로 인한 석유수급의 불안으로 인하여 석유대체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의 가치가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개발과 이용환경조성에 대규모자금이 요구되고 상업성이 입증될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원자력에 관련된 기술정보, 경험, 자원 및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교류가 요구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원화된 국제협력과 분업을 통해 상호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국제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시되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에너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때 원자력은 앞으로 계속 개발과 이용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에너지를 원자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때문에 원자력기술자립의 노력못지않게 대체에너지의 개발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원자력계가 보다 큰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자립과 안전성 제고에 주력해야하며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의 노력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발전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는 체질개혁에 우리 스스로 나설 수 있느냐에, 경제는 산업경쟁확보를 위한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느냐에,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여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장래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원자력산업 또한 사회적 거부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향후의 진로를 결정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프랑스나 일본 등 원자력산업이 토착한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原子力産業은 기술적 존재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존재로서 평가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원자력문제도 한낱 과학기술의 문제로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인식의 문제로 전환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을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 원자력과 사회, 원자력과 인간, 원자력과 문화의 장으로 확대하여 국민공동체 의식 속에서 국민적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原子力政策은 기본적으로는 에너지정책과 연계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국제환경의 변화속에서 기술자립과 안전성 확보 및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원자력에 대한 이러한 노력은 우리만이 아닌 세계적인 공통의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적 합의를 얻는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2일간 계속되는 본 연차대회에는 “깨끗한 환경과 보다 안전한 원자력발전을 위하여”라는 시의적절한 주제하에 국내외에서 50여편의 논문이 준비, 발표되고 있어 충분한 토의를 통해 알찬 결실이 맺어지고, 원자력기술정보의 교환과 원자력문화 정착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